

1. 모든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통일을 처음에 잘 모르는데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도 배웠다. DMZ 평화순례에 처음 갔고 저는 외국인이니가 평화 그리고 통일 그리고 역사를 잘 모르니가 이 프로그램은 통일을 그리고 역사를 조금 많이 배웠다.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 2. DMZ 평화순례

노동당사 → 노동당사는 강원도 철원군 관정리 평평한 논으로 이루어지 철원평야에 있는 곳으로, 옛날 조선 노동당의 철원군 당사 즉, 철원군민의 고향을 배웠던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알고 바라보니 정말 실감 났던 것이다. 이때 비가 오지만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새로운 것 배웠다.

평화전망대 → 여기서는 우리가 눈앞에 북한 땅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 506원 유료예요. 그냥 봐도 잘 보인다. 인천 명파도가 북한에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이해가 되더라.

평화통일강의 → 여기서 강의 들었다.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그리고 의미를 배웠다. 강의를 잘 들었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다.

3. 가까이 있지만 왜 통일을 못했나. 북한 땅에 보면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미래에 한국과 북한은 통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있다. 저희 희망을 한국과 북한을 통일 아직 안해지만 사색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 할 수 있다.

## 4. 정지석 강의 내용 :

• DMZ 남북한 분단의 현장 마을에서 한반도 갈등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평화통일 의식을 정리함.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알았다. 소이산에 올라갔고 처음에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비된 땅을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면 우리가 통일과 평화 어떻게, 왜 필요했고 잘 배웠다. 이 프로그램을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기, 한국과 북한을 사이 그리고 역사도 알았고 평화와 통일도 잘 배웠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 보냈다.